

# 보성군, 다시 뛰는 '클린600' 쓰레기 대물림 끊고 깨끗한 농촌 환경으로 주민·행정이 함께하는 원팀 청결책임제, 604개 마을 대청소 돌입

보성군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0일 까지 한 달여 동안 604개 자연마을에서 '2025 클린600 건강만들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다시 시작된 '클린600' 이번 사업은 2021년 처음 도입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클린600'을 재정비한 것으로, 불법 투기와 방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마을 주변 등의 쓰레기 대물림이다. 농가 주변과 마을 진입로, 하천과 야산에 버려진 각종 생활폐기물과 대형 가전, 낡은 가구들은 마을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보성군은 '클린600'을 재가동해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 환경

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다. 단발성 정화 활동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청결 운동으로 재도약한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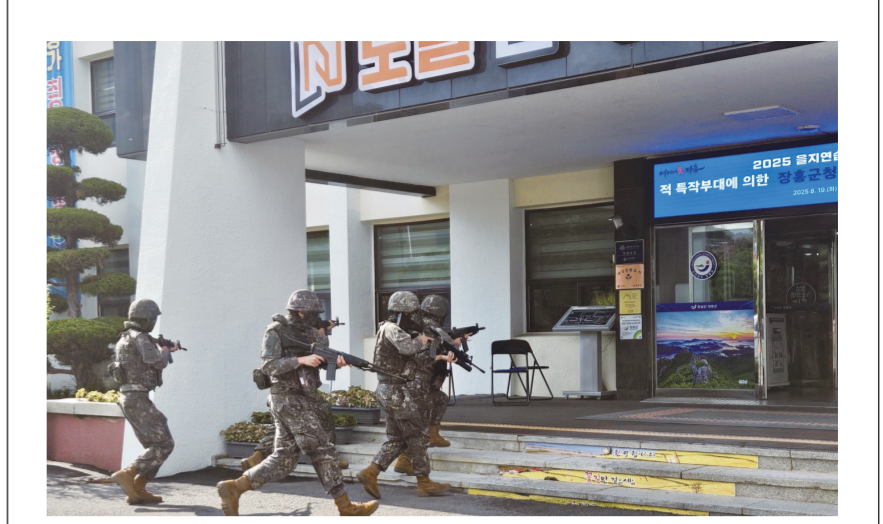
△ 주민이 주도하는 민관 원팀 청결책임제 이번 '클린600'의 핵심은 바로 민관 원팀(One Team) 청결책임제다. 마을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숨은 쓰레기를 찾아내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한다. 읍면은 주민 교육과 홍보, 배출 요령 안내를 맡으며, 군은 수거된 폐기물의 운반과 당일 위탁 처리에 나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특히, 읍면별로 구성된 '불법 투기 방지단'이 활동해 외부 쓰레기 반입을 차단하고 분리배출을 지도한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마을 골짜기는 임시 수거장으로 지정해 집하를 신속히 진행하며, 접근이 어려운 마을은 인근 대표 마을을 활용한다.



수거 체계도 한층 더 세분화됐다. 종량제봉투나 톤백을 활용한 생활폐기물과 장롱, 침대 등 대형폐기물은 유상 수거하고, 재활용품·폐가전제품·불연성 폐기물은 무상 수거한다. 방치·무단투기 쓰레기 역시 별도의 비용 없이 처리된다. 단, 공사장 폐기물, 슬레이트·석면 등 지정폐기물, 농업부산물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클린600은 행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속 청결 운동"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집 앞,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작은 실천이 보성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 장흥군, '통합 대응역량 강화' 읍지연습 성공적 마무리 14개 기관 1,000여명 참여,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장흥군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 합동 훈련인 '2025년 읍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읍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범국가적 비상대비 훈련이다.

올해 장흥군 읍지연습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었다.

군청과 유관기관 직원 등 14개 기관 1,000여 명이 참여해 실제훈련, 비상소집,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상황별 전시 현안 토의 등 실제 전시에 준하는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19일 오후에는 군청 청사 일원에서 화재·테러 진압, 초동조치, 피해 복구 등을 가정한 실제훈련이 실시되었다. 훈련에는 장흥군을 비롯해 육군 제

8539부대 3대대, 장흥경찰서, 장흥소방서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장비 10여 대와 인원 100여 명이 투입되어 합동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20일에는 군민회관을 비롯한 전 군민 대상 민방공 대피훈련이 진행되어 주민들이 공습 상황에 대비한 대피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21일 최종일에는 강평보고회를 통해 훈련 전 과정을 점검하고 우수사례와 개선사항을 공유하면서 훈련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성 군수는 "이번 읍지연습에서는 실전과 같은 상황 조성을 통해 민·관·군·경이 함께 협력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 위기대응 절차를 숙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2025년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양성평등 4행시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양성평등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댓글 게시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

## 담양군, 양성평등 주간 기념 '양성평등 4행시 이벤트' 운영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주제로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년품이 제공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이벤트는 양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했다"며 "재미있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

법」에 따라 매년 지정되며,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은 이번 주간에 캠페인, 이벤트,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담양/이중욱 기자



## 함평군, '다함께 건강up! 생활체조교실' 운영 '호평'

세대·계층 어우러진 생활체조로 건강증진과 화합 도모

전남 함평군이 건강과 즐거움을 모두 잡은 건강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22일 "다함께 건강up! 생활체조교실"이 10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2회 보건소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생활체조 교실은 함께 즐기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했다.

체조 교실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청·장년, 아동은 물론 다문화 여성과 장애인까지 30여 명이 참여하며 세대와 계층, 문화가 어우러진 건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업은 전문 강사가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춘 안무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된다.

함평군 보건소는 생활체조 교실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오는 2025년 신생활동경연대회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 청·장년, 아동은 물론 다문화 여성과 장애인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강공동체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 곡성군, 2026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변화와 성장 동력을 담은 신규시책 197건 발굴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18일부터 5일간 군청 소동마루에서 '2026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며,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군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197건의 신규 시책을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군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민선 8기 공약 내실화 △ 지역특화 전략 △ 생활 불편 해소 △ 유·중·고·특·비·효율 사업 구조 개선 등 4대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도출했다.

특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군민 안전,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적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둔 시책을 집중적으로 도출했다.

보고회는 조상래 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부시장과 직원 전원이 참여해 발굴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부터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전에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2026년 주요 신규 시책으로는 ▲ 농촌인력 수급 대응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품목 확대 ▲ 장미산업화 1단계 사업인 장미육묘장 신축 ▲ 2026 곡성 관광도약의 해 선포 ▲ 정해박해 200주년 기념 특화프로그램 운영 ▲ 탄소중립 포인트제 ▲ 육과 '모두의 광장' 프로젝트 ▲ 국제 정원박람회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블루베리 장기 출하 산지로 육성 ▲ 고품질 곡성멜론 연중 생산 기반 조성 ▲ 갑염병대응센터 신축 ▲ 곡성군 2036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공영주거장 조성 ▲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곡성/이정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구례군, 전남 최초 '거래형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획득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본격화 "산림이 곧 탄소자산"

전남 구례군이 전남 최초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거래형으로 추진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로부터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획득했다.

군은 지난 19일 광의면 온당리 산1-1 일원 121.8ha의 공유림에 대해 총 63tCO<sub>2</sub>의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받았다.

이는 일반 승용차 약1,4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을 상쇄할 수 있는 규모로, 구례군 산림이 '지역의 탄소저장소'이자 '탄소은행'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인증은 산림청의 산림탄소상쇄제도 중 '거래형' 유형으로, 인증받은 탄소흡수량을 배출권 시장에서 매각해 세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해당 인증 대상지는 그간 추진해 온 총 578.9ha 규모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일부로, 이 중 거래형 방식은 약378ha에 해당한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인증 산림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흡수량 매각 및 수익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전남 지자체 최초 인증 성과를 적극 홍보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산림경영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보다, 생각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목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리고 싶은 생각은 말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작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거서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기념스레 생김.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들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웃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몇 장이나 될까. 새삼치. 잠시. 웃어주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풍환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단'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겠. 언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 언제나 우연치.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